

# 사랑방 생겨 웃음꽃 핀 고려인들...애기꽃도 맘껏 피워야죠

## 종합지원센터 개소후 첫 추석 맞는 광주 고려인마을

### 아이 맡기고 교육도 받고...3000여명에 최고의 선물 후원 늘어 마을전체가 잔칫집...28일엔 한가위 잔치

“날집승도 거처가 없으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보금자리가 마련되고 맞는 첫 추석이라 마을 전체가 잔칫집입니다.”

추석을 사흘 앞둔 24일 찾아간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의 분위기는 예년의 명절보다 한껏 달아올랐다.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체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고려인종합지원센터가 들어선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이기 때문이다.

이날 만난 고려인들은 한결같이 “보금자리가 생기고 나서 첫 명절이라 절로 흥이 난다”, “무엇보다 우리 건물이라서 좋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고려인들의 보금자리인 고려인종합지원센터는 고려인마을에 있는 2층짜리 건물에 상담실, 교육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쉼터, 식당 등을 갖춰 지난 7일 문을 열었다.

광주지역 3000여명의 고려인 누구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 곳에서 채용, 서류자격, 임금체불, 산업재해, 국적 취득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이들을 맡길 수 있어 고려인들의 기쁨이 크다. 이전에도 고려인을 지원하는 센터는 있었지만 임대건물을 사용하다 보니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닫을 위기를 겪어왔는데 이제는 자체 건물을 갖게 돼 부담도 줄었다.

이런 탓에 올 추석 명절을 앞둔 고려인마을은 잔칫집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오전 11시 센터에 모인 20여명의 고려인들은 송편을 빚고 빵을 만들며 연휴기간 함께 나눠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센터 내 놀이방에서는 맛별이 부부가 출근하면서 맡기고 간 20여명의 아이가 보육교사의 지도로 윷놀이 등 전통놀이를 배우고 있었다. 폭신폭신한 매트가 깔려있는 놀이방에서 한껏 웃고 떠들며 뛰노는 아이들 얼굴에선 그들의 부모나 조부모들이 시베리아 별관을 유랑하면서 느꼈을 법한 한(恨)은 느껴지지 않았다.

후원물품도 예년보다 늘어 마을은 더욱 밝아졌다. 고려인마을에는 이달 초부터

개인과 단체 수십명에게서 20kg들이 쌀 200포대, 라면 100여 상자, 비누 2200개, 밀가루 200개 등 후원물품이 밀려들었다. 센터 측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고려인 한가위 잔치에 참석한 고려인들에게 고루 나눠주기로 했다. 3년 전부터 열린 고려인 한가위 잔치는 애초 명절 연휴 공장들이 쉬면서 오갈 데 없는 고려인들이 월곡동의 한 공원에 모여 윷놀이도 하고 음식을 나눠먹는 조촐한 자리였으나, 해가 거듭할수록 참석하는 고려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고려인종합지원센터가 자리를 마련하고 참석하는 고려인들도 스스로 음식을 마련해와 나누다 보니 이제는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는 행사라 됐다. 고려인들은 이번 한가위 잔칫날 한복 입기 체험, 어린이 재롱잔치, 장기 자랑, 후원물품 나누기를 하며 친목을 다지기로 했다.

(사)고려인마을 대표 이천영 목사는 “시민들과 독지가들의 후원으로 고려인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들어서고 곳곳에서 보내주시는 후원물품으로 부족함이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khh@kwangju.co.kr



24일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마을 내 고려인종합지원센터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고려인들이 추석 명절을 나눠먹을 빵을 만들며 애기꽃을 피우고 있다. 일제강점기 시베리아를 유랑했던 고려인들은 빵을 주식으로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유류비 아끼려고...냉동탑차 온도 조작 변질 우려 냉동식품 유통한 업자 적발

유류비를 아끼려고 운송 과정에서 냉동탑차의 온도를 조작, 변질 우려가 있는 냉동식품을 다량 유통한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장은 24일 냉동탑차의 냉각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냉동식품을 운송,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물류회사 대표 김모(61)씨와 유통업체 대표 강모(39)씨, 운전기사 등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어기고 냉동탑차 온도를 조작, 변질 우려가 있는 냉동만두, 육가공제품 등 냉동식품 684t(264억원 상당)을 대형마트, 학교, 병원 등에 유통한 혐의다.

김씨가 운영하는 물류회사는 냉동탑차로 충남의 공장에서 생산된 냉동식품을 경기도 시화 물류센터로 거쳐 담양의 물류센터로 운송하면서 탑차의 냉각장치를 끄거나 기준

보다 약하게 작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냉동·냉장식품의 경우에는 30분 단위로 냉동탑차의 온도가 자동으로 기록지에 기록된다. 온도가 조작되면서 실제 냉동탑차의 온도는 영하 6도~영상 0도에 불과했지만 영하 18~20도인 것처럼 기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냉동식품은 제품 생산부터 운송 과정까지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 상온 상태에서는 식중독균 증식 가능성이 커지는 등 변질 우려가 있다”면서 “온도 조작으로 물류업체는 유류비 20~30% 절감 효과(일 왕복 기준 3~5만원)를 거뒀다”고 말했다.

/김정호기자 khh@kwangju.co.kr

## 360억 스포츠도박 사이트 일당 잇따라 적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잇따라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240억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장을 개장한 일당 6명을 적발해 이 중 도박사이트 운영자 A(39)씨와 중간관리자 K(27)를 구속하고, 게임 등록과 환전을 맡은 S(24)씨 등 2명은 불구속, 도주한 직원 2명은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웨이하이시에 본

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가에서 공인하는 스포츠도박과 유사한 형태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240억 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장을 개장, 2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이날 12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12곳을 제작·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사이트 제작자 A(36)씨와 운영자 B(28)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제작·운영에 참여한 공범 3

명, 직원 9명, 통장판매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경부터 미국에 서버를 둔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 20여개를 제작·판매하고 사후 관리 대가로 모두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경영이 어려워지자 도박 사이트를 팔기 시작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A씨로부터 사들인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며 1년간 회원 수 3000여명, 판돈 120억원대 규모의 불법 스포츠도박이 이뤄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항해실습 목포해대생 실습선서 실종...수색

실습 항해에 나선 목포해양대 학생이 실습선에서 실종돼 해경이 수색 중이다.

24일 목포해양대의 목포해양경비안전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8분께 목포시 외달도 서쪽 3~4km 해상에서 목포해양대 실습선 3644t급 새유달호에 타고 있던 이 대학 3학년 A(24)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15분께 배에서 목격됐지만 이후 8시30분 인원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다.

실습선에 승선 중이던 승조원 27명, 실습생 89명 등 모두 116명은 선내 수색에 나섰고, A씨를 찾지 못하자 해경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목포해양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실종인지 자살인지 추정하기 힘들다”며 “실종된 학생이 평소 진로와 집안 문제로 고민해 왔다는 동료들의 말은 있지만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올해 목포해양대에 편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배는 지난 21일 목포대 부두를 출발해 이날 오후 3시에 다시 대학 부두로 돌아올 계획이었다.

목포해양안전서는 수색 작업을 펴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2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정원주(47) 중흥건설 사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는 24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사장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횡령과 배임 액수 153억원 가운데 허위회계 처리한 부분 등 22억원은 유죄, 나머지 131억원은 개인적인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그동안 소외계층을 위해 상당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구속됐던 정 사장은 이날 집행

유예 선고로 석방됨에 따라 다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종만 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순천시청 세무직 공무원 신 모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신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흥건설이 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중흥건설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마무리하고 정 사장을 비롯해 회사 임직원, 전남도청·순천시청·국세청 공무원 등 12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순천=김은종기자 eikim@

## “아내 정신병원 입원시켜줘” 술취해 112 신고한 남편



○...술에 취해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달라고 112에 전화를 걸었던 40대 남성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흥기를 휘둘렀다가 테이저건으로 제압 당한 뒤 쇠고랑

○...24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배모(47)씨는 지난 22일 오후 4시3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자신의 집에서 신고를 받

고 출동한 심모(43) 경사 등에게 수차례 흥기를 휘두른 혐의.

○...구속된 배씨는 이날 소주 2병을 마신 뒤 아내(44)에게 행패를 부리고 급기야는 경찰관에게까지 흥기를 휘둘렀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는데, 경찰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뒤늦은 후회.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문화복합시설
펜션 · 식당 · 전원주택단지
최고장소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879-4번지 외 1필지(구, 송학랜드)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담양리조트 1분거리
- 대2441평 건882평 임6726평
- 매매-22억  
감정가/시세-30억원  
대출 - 12억 5천만원 포함(연 2.1%)  
법인체 인수 가 (이전비 없음)  
1년 후 20억 정도 대출 가능
- 추가 형질변경가  
공시지가 10억 정도 상승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관광특구로 모든업종 개발 가능  
도 관광진흥자금 유치 가능

■ 리모델링 후(2억원 정도 투자)  
연 3억원 이상 순수익 가능  
(과거, 펜션/식당/박물관 운영함)